

# 이슈보고서

지역연구팀

VOL.2022-지역이슈-2(2022.02)

## 아프리카 핀테크 시장 동향 및 시사점



### CONTENTS

- I. 아프리카 핀테크 시장 동향
- II. 아프리카 모바일 머니 이용 현황
- III. 전망 및 시사점

### 작성

책임연구원 김경하 (6252-3598)  
kh.kim@koreaexim.go.kr

※본 보고서의 내용은 담당 연구원의 주관적 견해로, 한국수출입은행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 <요 약>

### I. 아프리카 핀테크 시장 동향

-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 서비스 및 관련 산업의 변화 및 혁신을 통칭함.
- 최근 들어 핀테크는 비금융, IT 기업이 기술을 접목하여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변화함.
- 코로나19로 기존 금융기관의 고객들은 비대면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banking, 모바일 banking과 같은 디지털 banking으로 유입됨.
- 아프리카는 중남미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금융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
- 아프리카의 급속한 인구 증가 및 도시화 현상,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와 중산층의 확대, 저개발된 금융 생태계는 핀테크 분야 성장에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 II. 아프리카 모바일 머니 이용 현황

- 아프리카의 핀테크 산업은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휴대폰 기반의 금융 서비스인 모바일 머니의 등장으로 시작됨.
- 금융 소외계층 비율이 높은 아프리카는 전 세계에서 모바일 머니를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지역으로, 전 세계 모바일 머니 활성 계좌의 53%, 거래액의 64%, 거래 건수의 66%를 차지함.
- 스마트폰 기반 간편 결제 서비스의 확산에도 농촌 지역의 높은 인구 비율과 저소득층 비율,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아프리카의 스마트폰 보급률과 인터넷 이용률로 인터넷 연결이 불필요한 USSD의 사용률은 여전히 높음.
- 모바일 머니 시장은 최근 케냐를 비롯한 동아프리카 지역뿐만 아니라 서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빠른 확대를 보여주고 있음.
- 가나 정부의 모바일 머니 상호운용 플랫폼 출시와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의 PSB 라이선스 도입으로 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모바일 머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서아프리카의 모바일 머니 이용률은 빠르게 상승하는 중임.

### III. 전망 및 시사점

- 아프리카연합(AU) 및 아프리카 국가들은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와 디지털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 중임.
- 향후 5G 및 스마트폰 보급률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아프리카 핀테크 산업은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동시에 서비스의 다양화도 예상됨.
- 모바일 머니를 통한 금융 거래와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이용의 증가 등으로 아프리카에서 사이버 범죄의 발생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보호, 디지털 권리, 사이버 범죄 예방 등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교육, 농업 등 주요 분야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디지털 분야 기반시설 설립, 신원 인증, 정보처리 속도 향상, 사이버 보안 관련 분야가 유망할 것으로 사료됨.



## I. 아프리카 핀테크 시장 동향

### 금융 산업은 핀테크의 등장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중

-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 서비스 및 관련 산업의 변화 및 혁신을 통칭함.
- 새로운 IT 기술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앱카드 등을 통해 기존 금융 창구에서 취급하던 업무를 대체하여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의 혁신 및 기술적인 과정을 포괄함.
- 디지털 뱅킹은 단순 현금이 사라진 금융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전통적 중앙 집중형 구조에서 기술 중심적 분산형 금융 모델로의 전환을 뜻함.
- 최근에는 기술이 더욱 강조되면서 금융기관이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비금융, IT 기업이 보유 기술 및 플랫폼을 기반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는 중국의 알리페이, 한국의 카카오페이 등이 있음.

### 핀테크는 현재 핀테크 1.0, 핀테크 2.0을 넘어 핀테크 3.0으로 진화하는 중

- 초기 핀테크는 기존 금융 거래의 디지털화를 통해 거래의 속도가 빨라진 것이 특징으로, 온라인 결제가 가능해진 것과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 주요 특징임.
- 핀테크 1.0은 19세기 후반 금융 세계화의 초기 단계에서 금융 정보를 국외로 빠르게 전송하기 위하여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부터 시작됨.
- 핀테크 2.0은 전통 금융기관의 디지털화가 특징으로 대표적인 예로 ATM(1967), 나스닥(1971), 온라인 뱅킹(1983)의 등장이 있음.
- 핀테크 3.0은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한 금융기관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과 인터넷, 스마트폰 보급률의 빠른 증가 등을 바탕으로 은행과 같은 전통적 금융기관이 아닌 스타트업과 같은 신규 진입자들이 금융 시장에 등장한 것이 특징임.
- 그 결과 핀테크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 IT 기업이 금융 서비스를 주도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IoT, 5G, 블록체인, 클라우드, AI, 빅데이터, API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더욱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변화 중임.
- 핀테크 3.5는 최근 아프리카-아시아 신흥국에서 나타나는 핀테크 혁명을 일컬으며, 금융 포용성의 대두와 경제 성장으로 핀테크 개발이 촉진됨.
- 대표적인 예로 2007년 케냐 최초 모바일 머니 서비스인 엠페사(M-PESA)의 등장과 2010년 중국 Alibaba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 상품의 출시가 있음.
- 이들 지역은 휴대폰 보유율이 은행 계좌 보유율보다 상당히 높은 것과 금융 시장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것이 특징으로, 휴대폰을 인프라로 활용한 금융 서비스의 제공은 기존 금융기관의 한계를 보완 및 대체하여 금융 서비스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고객의 범위를 확대하며, 금융 거래 및 이용률을 증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



[표 1] 핀테크 변화 과정

구분	핀테크 1.0	핀테크 2.0	핀테크 3.0	핀테크 3.5
시기	1866~1967	1967~2008	2008~현재	
범위	전 세계·선진국	전 세계·선진국	선진국	신흥국·개도국
주요 요인	인프라 개발, 컴퓨터화	인터넷 발달	휴대폰·스마트폰 보급화, 스타트업 등장	
변화의 원인	연결	디지털화	2008 금융위기, 스마트폰 도입	후발진입자 우위

자료: Johannes, Mirjam. "Evolution of Fintech." <https://www.e-zigurat.com/innovation-school/blog/evolution-of-fintech/>

###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금융 서비스 수요의 증가로 핀테크는 급성장

- 코로나19로 시행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이동 제한 정책 등으로 인한 대면 거래의 감소로 금융기관 점포 수가 감소하자, 기존 금융기관의 고객들이 비대면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banking, 모바일 banking과 같은 디지털 banking으로 유입됨.
- 현재 핀테크는 스타트업 분야 중 가장 투자가 활발한 산업으로,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전 세계 610개의 유니콘 중 94개를 차지함.
- 많은 국가들이 정부 차원에서 핀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핀테크 지원을 위한 법안 제정,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의 제도를 마련 중임.

### 아프리카 핀테크 시장 역시 지난 10년 간 빠르게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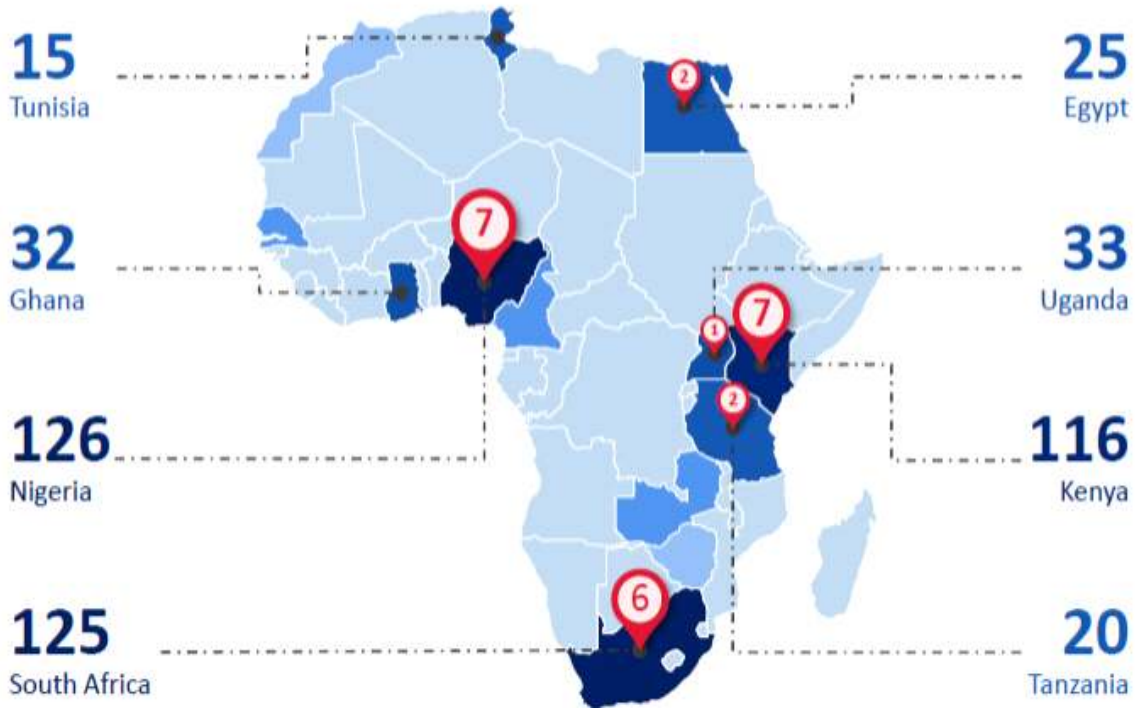
- 아프리카는 중남미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금융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
- 아프리카의 급속한 인구 증가 및 도시화 현상,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와 중산층의 확대, 저개발된 금융 생태계는 핀테크 분야 성장에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 또한, 정부의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아프리카의 인터넷 보급률은 2020년 43%까지 증가했으며, 1GB 평균 데이터 요금은 2018년 대비 1/3 수준으로 감소함.
- 그 결과 2021년 아프리카의 테크 스타트업은 5년 전과 비교하여 약 9배 증가한 약 50억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했으며 이 중 핀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는 약 30억 달러로 전체 투자의 2/3 가량이 핀테크 분야로 유입되었음. 이는 2019년 대비 3배, 2020년 대비 2배 가량 증가한 수준임.
- 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핀테크 스타트업은 2021년 기준 576개로 2019년과 비교하여 17.3% 증가함.
- 핀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는 향후 휴대폰과 인터넷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휴대폰 가입자 수는 2025년까지 6억 1,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대륙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임.
- 핀테크는 아프리카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인 금융 인프라의 낙후를 기회로 변화시킴.
- 아프리카 국가들의 금융기관은 오랫동안 인프라 부족, 신분증명 부재, 정보 비대칭성, 높은 거래비용 등의 이유로 신용 측정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계층, 소액 거래자 등을 고객의 범주에서 제외하였고, 서비스 이용에 대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며 담보 위주 여신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그 결과 아프리카 인구의 대다수는 금융소외계층이었음.



- 핀테크 기업들은 기존 금융기관을 통해 쉽게 이용하기 어려웠던 국내 및 해외 송금 및 수금과 온·오프라인 결제, 소액 대출 등의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이는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된 수백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을 금융 서비스에 연결하며 대륙의 금융 포용성을 상당히 개선함.
- 맥켄지(McKinsey)는 아프리카 내 핀테크 혁명을 통해 동 지역의 은행 계좌 보유 인구가 2017년 3억 명에서 2022년 4억 5천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 아프리카의 핀테크 스타트업 중 약 68%는 아프리카의 빅3 시장으로 불리는 나이지리아, 남아공, 케냐 3개국에서 활동 중임.
-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나라이자 핀테크 생태계가 가장 잘 구축된 나라로 2020년 말 기준 200개 이상의 핀테크 기업이 활동 중이며, 여기에는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인 Flutterwave와 Interswitch도 포함됨.
- 2020년 나이지리아의 스타트업에 대한 총투자액의 44%를 핀테크가 차지했으며, 나이지리아의 유니콘 기업인 Opay\*, Flutterwave\*\*, Interswitch\*\*\* 모두 핀테크 분야에서 활동 중임
  - \* Opay: 2018년에 설립된 전자지갑 서비스로,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 \*\* Flutterwave: 2016년에 설립된 결제 서비스로 아프리카 전역에서 사용 가능한 가상 신용카드와 현지 결제 수단을 제공하며, 사용자 위치를 인식하여 현지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
  - \*\*\* Interswitch: 2002년에 설립된 통합 결제 기술기업으로, 오픈뱅킹과 같은 여러 은행이 연계된 인프라 구축 및 온라인 결제 플랫폼을 제공
- [케냐] 케냐의 핀테크 개발은 M-PESA로 인한 모바일 머니의 혁명으로 가속화됨. 모바일 머니는 2007년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도 이용률과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 모바일 머니의 성공으로 케냐는 아프리카의 IT 허브로 떠오르며 아프리카의 실리콘 사바나(Silicon Savannah)로 불리고 있음.
- [남아공] 남아공은 전체 인구 중 인터넷 이용 인구 94%, 휴대폰 보급률 100% 이상으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핀테크 보급률을 보여주며, 이미 전체 인구의 67%가 은행 계좌를 보유한 상태임.
- 남아공은 전통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무역 및 투자, 상업의 중심지로, 남아공 제1의 도시인 케이프타운에서는 남아공 전체 테크 스타트업 중 47%가 활동하고 있으며, 벤처 캐피탈(Venture Capital: VC)의 75%를 차지함.
- 최근 새롭게 떠오르는 아프리카 핀테크 시장으로는 서아프리카의 가나가 대표적임.
- 가나는 아프리카에서 핀테크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 중인 곳으로, 일찍이 1997년 디지털 직불카드를 출시한 가나 정부는 2008년 국가 스마트카드 지불 시스템인 E-zwich\*를 출시했으며, 2020년에는 보편적 QR 코드\*\*를 도입하는 등 핀테크 기술을 적극 수용해옴.
  - \* E-zwich: E-zwich 카드는 가나 내 모든 금융기관을 연결하여 상호운용이 가능한 생체 인식 스마트카드 결제 시스템으로, E-zwich 카드 소지자는 모든 은행(모바일 머니 포함) 및 소매점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
  - \*\* 보편적 QR 코드: 가나 중앙은행이 제공하는 카드, 휴대폰 등 모든 결제방법을 통합한 단일 결제 시스템으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이동전화 가입자면 누구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



[그림 1] 아프리카 핀테크 주요 8개국



자료: Wheeler Institute for Business and Development(2021). "Africa Fintech: Scale Prevalence."  
 주: 숫자는 2019년 기준 활동 중인 핀테크 기업 수를 나타냄.

[그림 2] 아프리카 주요 핀테크 기업

나이지리아	케냐	남아공	이집트
Interswitch OPay etranzact carbon renmoney palmpay paga	cellulant Equitel M-PESA M-KOPA DPO airtel money branch	MTN Mobile Money MFS Africa JUMO flash YOCO TymeBank	이집트 탄자니아 halotel tigocash 우간다 TUGENDE

자료: Patel, Ishani and Mutiso, Eugene (2021), "Fintech and its Evolution in Africa."  
<https://medium.com/the-capital/fintech-and-its-evolution-in-africa-4dd5f6453be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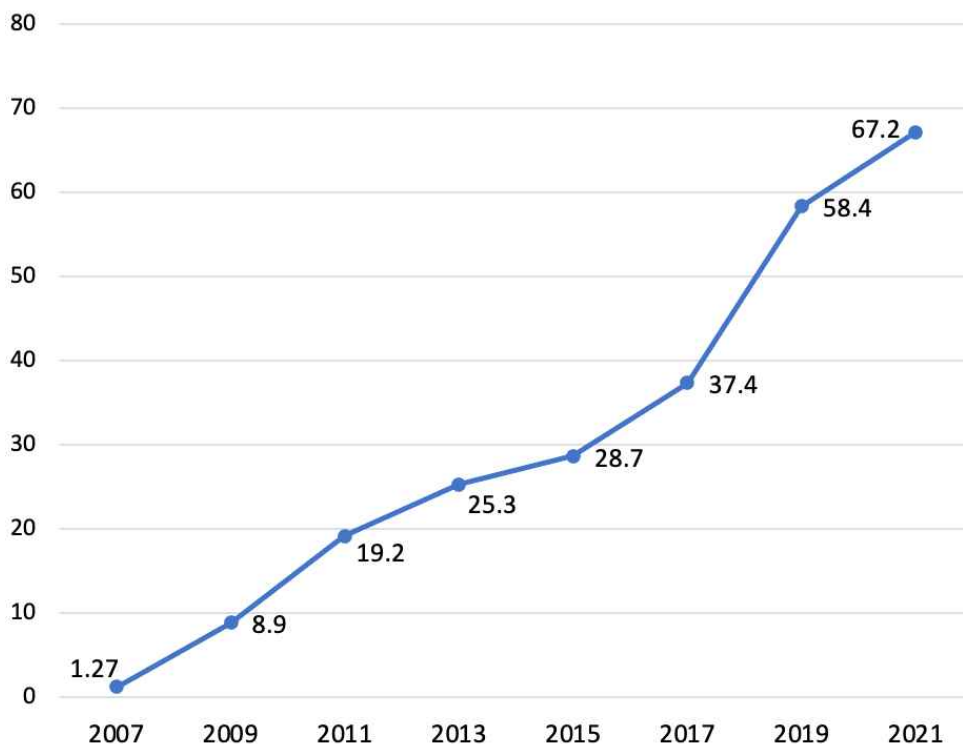
## II. 아프리카 모바일 머니 이용 현황

### 아프리카의 핀테크 산업은 모바일 머니의 등장으로 시작

- 모바일 머니는 주로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휴대폰 기반의 금융 서비스로, 기존 금융기관의 금융 포용성에 대한 한계를 넘어 다수의 사람에게 간단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됨.
- 아프리카 최초의 휴대폰 기반 모바일 머니 서비스는 케냐의 M-PESA로, 2007년 3월 케냐의 통신 선도기업인 사파리콤(Safaricom Limited)과 영국의 보다폰(Vodafone)이 조인트 벤처로 출시한 모바일 금융 플랫폼임.
- M-PESA는 핀테크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이자 아프리카 모바일 머니 붐의 시초로 출시 첫 달 만에 2만 명의 고객이 가입했으며 2007년 말까지 200만 명이 가입함.
- 2021년 말 심(SIM) 카드 수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머니 가입자 수는 케냐 총 인구(2020년 기준 약 5,400만 명)보다 많은 6,700만 명을 돌파했으며(그림 3 참고), 모바일 머니를 통한 거래는 GDP의 87% 수준에 달함.

[그림 3] 케냐의 모바일 머니 사용자 수 변화

(단위: 백만 명)



자료: 케냐 중앙은행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의 도래는 모바일 머니 이용의 전 세계적인 증가를 견인하고 있음.
- 대면 거래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성 증가와 정부의 이동제한 정책 시행에 따라 사람들은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한 방안으로 모바일 머니를 이용하기 시작하였음.



- 은행 이용률이 낮은 개도국 및 신흥국 정부에서는 봉쇄조치 기간 동안 금융거래 상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하여 고객 신원 확인(Know Your Customer: KYC) 기준의 완화, 소액 송금에 대한 수수료 면제, 모바일 머니를 통한 거래 한도 완화 등의 정책을 시행함.
- 그 결과 2020년 모바일 머니 계좌 수는 전 세계적으로 12.7% 증가하고 일일 거래액은 2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모바일 머니를 통한 해외 송금은 65% 가량 증가함.

## 모바일 머니는 아프리카 금융 포용성 개선의 도구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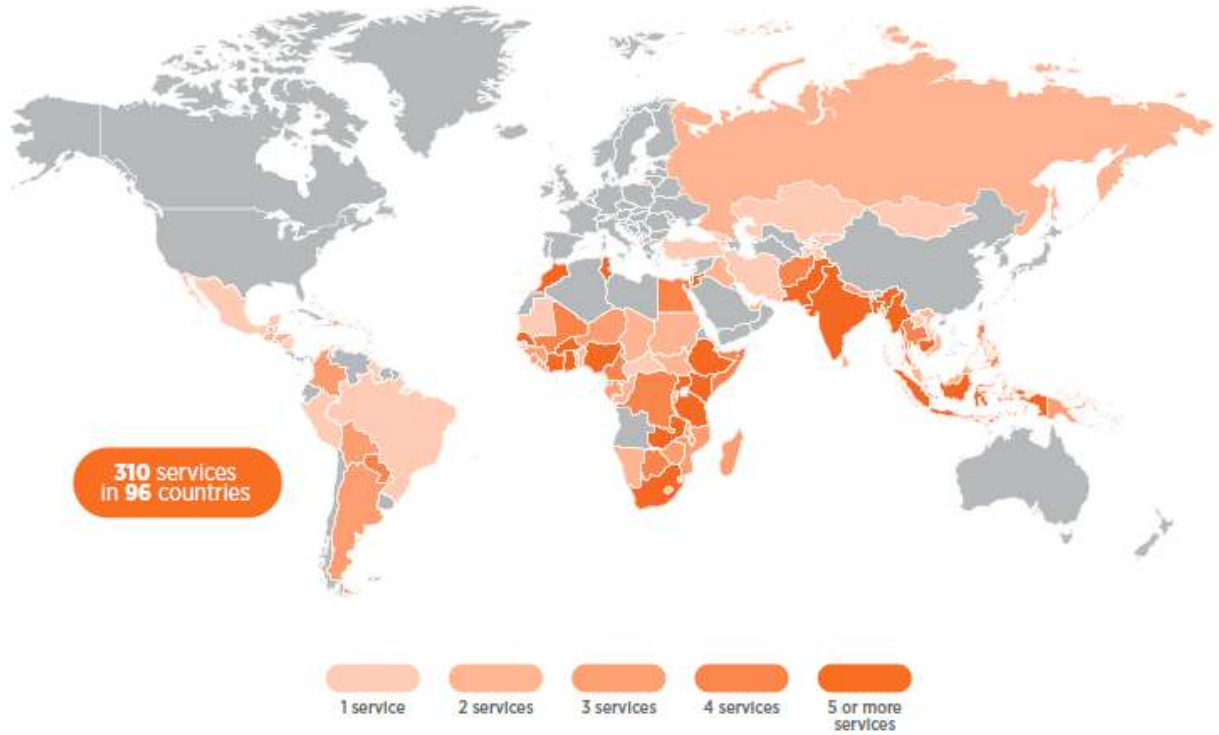
- 모바일 머니는 기존 금융기관과 비교해 접근성, 유용성, 편리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음.
  - 모바일 머니는 지리적 제약 및 인프라 부족 문제를 넘어 사용자와 금융기관과의 거리를 좁히며, 시간 및 장소 제약 없이 휴대폰 번호를 보유한 고객이면 누구나 쉽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음. 또한 모바일 머니를 통한 비대면 거래는 소액을 자주 거래하기 원하는 저임금, 저소득층 사용자들의 부담감을 낮추며 금융거래를 증가시킴.
  - 또한, 모바일 머니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존 유·무선 네트워크의 활용은 서비스 제공업체의 운영비용을 절감시키며 고객들에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고, 이는 사용자들의 거래 비용을 낮춤.
  - 실제로 모바일 머니를 포함한 무점포 은행(Branchless banking)의 경우 다른 금융 채널의 서비스 이용 수수료 대비 평균 19% 가량 저렴하며, 케냐의 M-PESA의 경우 케냐 내 금융기관보다 약 1/3에서 절반 가량 저렴함.
- 케냐의 M-PESA 성공 이후 모바일 머니는 주변 동아프리카 국가들은 물론 아프리카 전역에서 금융 포용성 개선을 위한 도구로서 적극 활용되고 있음. 그 결과 아프리카의 금융 포용성은 2011년 23%에서 2017년 43%로 두 배 가량 성장함.
  - 특히, 모바일 머니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케냐의 경우 국가의 금융 이용 및 포용성 측정을 위해 케냐 중앙은행과 통계청, FSD Kenya가 실시하는 FinAccess 설문조사 결과 금융 서비스 이용 비율이 2006년 26.7%에서 2021년 83.7%로 급격히 증가함.
- 금융소외계층 비율이 높은 아프리카는 현재 전 세계에서 모바일 머니를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지역임(그림 4 참고).
  -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에 따르면 아프리카는 전 세계 모바일 머니 활성 계좌의 53%, 거래액의 64%, 거래 건수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동아프리카는 전체 아프리카 모바일 머니 거래량의 68%, 거래액의 55%를 차지함(그림 5, 6 참고).
  - 최근 등장하는 스마트폰 기반 간편 결제 서비스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농촌 지역의 높은 인구비율과 저소득층 비율,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아프리카의 스마트폰 보급률과 인터넷 이용률로 인해 인터넷 연결이 불필요한 USSD<sup>1)</sup>의 사용률은 여전히 높음.

1) 비정형 부가 서비스 데이터(Unstructured Supplementary Service Data): 이동전화에서 문자 전송에 사용되는 GSM 통신 기술로 짧은 메시지 서비스(SMS)와 유사하나, SMS는 메시지를 저장했다가 후에 전송할 수 있지만 USSD는 세션 기간 중에만 전송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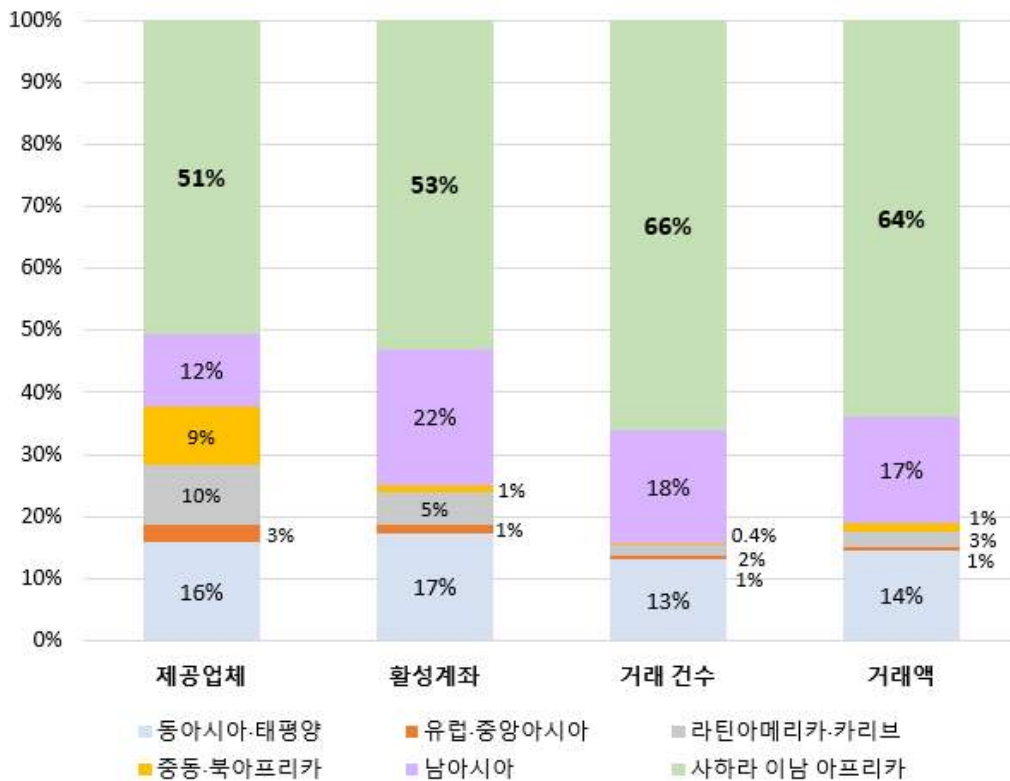


[그림 4] 모바일 머니 서비스 제공업체 분포(2020년)



자료: GSMA(2021), "State of the Industry Report on Mobile Money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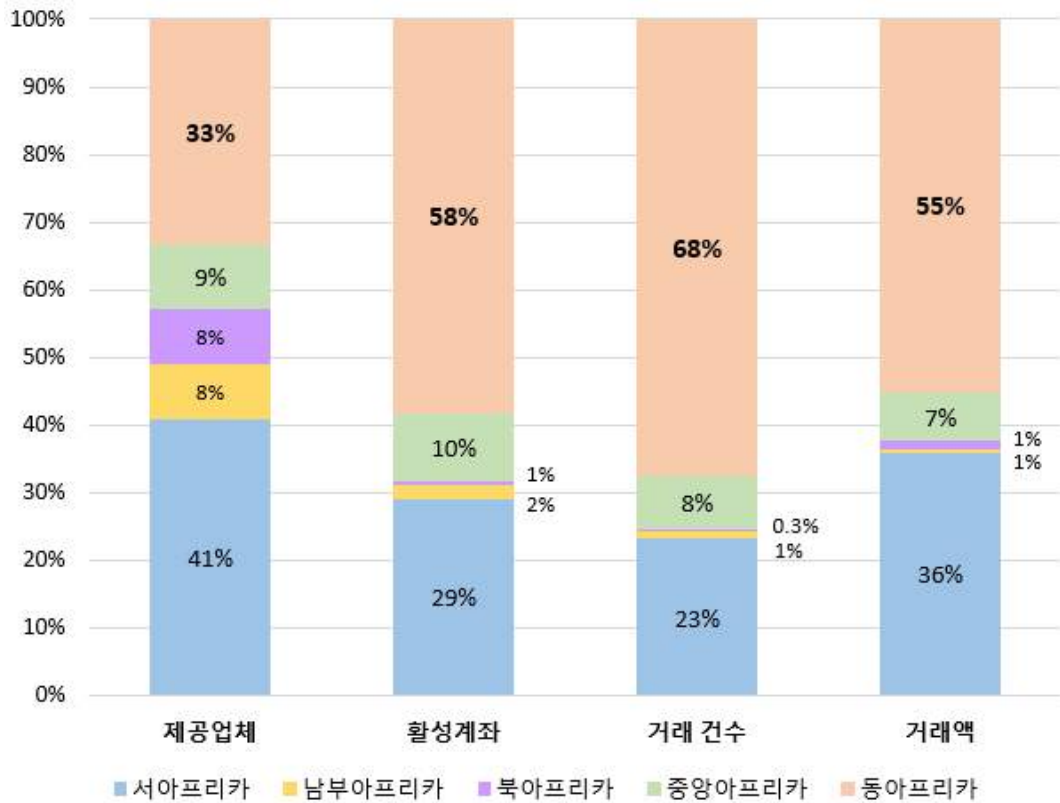
[그림 5] 지역별 모바일 머니 이용 현황(2020년)



자료: GSMA(2021), "State of the Industry Report on Mobile Money 2021." 데이터 기반 저자 작성



[그림 6] 아프리카 내 지역별 모바일 머니 이용 현황(2021년)



자료: GSMA(2021), "State of the Industry Report on Mobile Money 2021." 데이터 기반 저자 작성

- 최근 서아프리카에서도 모바일 머니를 통한 거래가 빠르게 증가하는 중임.
- [가나] 가나는 모바일 머니 사용이 빠르게 증가하는 나라로 활성 계좌 수는 2020년 2월 1,470만 개에서 2021년 2월 1,750만 개로 증가했으며, 모바일 머니를 통한 거래액은 동 기간 50억 달러에서 115억 달러로 증가함.
- 2018년 가나 정부가 아프리카 최초로 모바일 머니 상호운용 플랫폼을 출시한 이후 타사 모바일 머니 사용자들과도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모바일 머니를 통한 거래는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의 핀테크 시장은 아프리카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최근까지 정부의 제한된 모바일 머니 정책과 통신 인프라의 부족으로 모바일 머니는 크게 성장하지 못함.
-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은 2018년 10월 결제 서비스 은행(Payment Service Bank: PSB) 라이선스를 도입하기 전까지 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모바일 머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았음.
- 통신 서비스 사업자는 PSB 라이선스를 통해 디지털 금융 서비스 제공 목적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모바일 머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
- 나이지리아는 휴대폰 사용률이 49.7%, 은행 계좌 보유율은 40%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이지만 정부의 모바일 머니 시장의 개방과 핀테크 스타트업의 활성화로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전망은 매우 밝음.



- 동아프리카의 '잠자는 거인(Sleeping giant)'으로 불리는 에티오피아도 최근 모바일 머니 서비스를 출시함.
  - 에티오피아의 모바일 머니 시장은 나이지리아와 더불어 아프리카의 '잠자는 거인'으로 불릴 정도로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당한 잠재력을 지닌 시장으로 평가됨.
  - 2021년 5월 에티오피아 최대 국영 통신사인 에티오피아 텔레콤(Ethio Telecom)은 국가 최초의 모바일 머니 서비스인 텔레비르(TeleBirr)를 출시함. 텔레비르는 에티오피아 텔레콤 이용 고객에게 휴대폰 번호를 통한 쉽고 간편한 송·수금 등의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금융소외계층에 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에티오피아 텔레콤의 장기간 통신 시장 독점으로 시장 경쟁이 없는 상황에서 텔레비르는 출시 2주 만에 가입자 수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4개월 뒤인 9월에는 가입자 수 1,000만 명, 거래액 2,100만 달러를 넘어서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에티오피아 텔레콤은 향후 에티오피아 국민 중 5,300만 명이 텔레비르 사용자가 될 것이며, 5년 안에 에티오피아 경제활동의 40~50% 가량이 텔레비르 플랫폼을 통한 결제에 의존할 것으로 예측함.



### Ⅲ. 전망 및 시사점

#### AU와 아프리카 각국은 핀테크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 중

-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AU)은 디지털 전환 전략(Digital Transformation Strategy for Africa: DTS) 2020~2030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
  - AU는 아프리카의 통합과 포용적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디지털 격차 완화, 빈곤 근절, 사회 경제적 개발을 위하여 2020년 디지털 전환 전략을 수립, 디지털 관련 규범의 단일화를 통해 아프리카의 디지털 단일시장 창출을 목표로 함.
  - AU는 회원국의 사이버 보안법, 개인정보 보안법 등 디지털 관련 법안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역내 국가 간 전자상거래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함.
  - 또한, 농업·보건·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고 인적자원 역량 개발을 촉진하여 세계시장에서 아프리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자 함.
- 아프리카 각국 정부들도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시행 중임.
  - 케냐와 르완다는 모바일 머니 제공업체 간의 상호 운용성<sup>2)</sup>을 시행할 예정이며, 에티오피아는 온라인 결제와 전자상거래 관련 법안의 초안을 작성 중임.
  - 가나는 세계 최초로 디지털 금융 서비스(Digital Financial Services: DFS) 정책을 시행 중임. 동 정책은 2020~23년 동안 디지털 금융 시스템 관련 거버넌스 개선 및 시장 인프라 개발, 핀테크 지원 강화, 디지털 결제 사용 확대 등을 목표로 함.
  - 르완다 중앙은행은 2017년 아프리카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으며, 현재 나이지리아, 앙골라, 가나, 케냐 등 여러 국가에서도 핀테크 및 ICT 분야 관련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 상태임.
  - 또한,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보험법을 개정하여 핀테크 기업이 대출 및 저축과 같은 전통적인 은행 금융 상품뿐만 아니라 보험 상품도 제공할 수 있게 함.

#### 향후 5G 및 스마트폰 보급률 증가에 따른 핀테크 성장잠재력 다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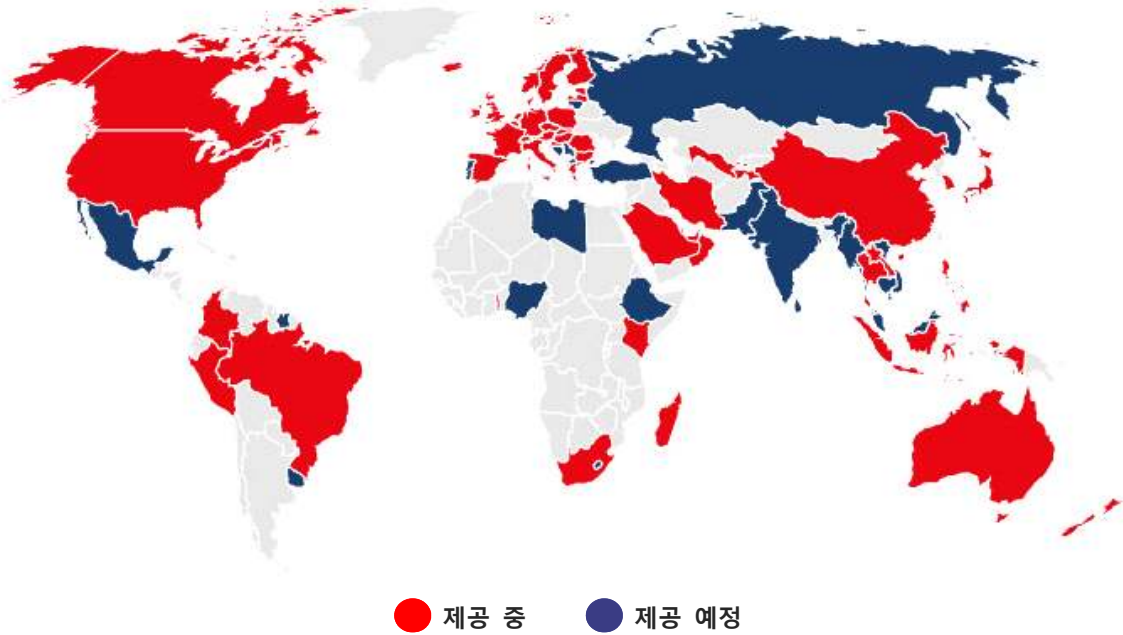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5G 이용률과 스마트폰 보급률은 아직까지 매우 저조한 편으로, 2020년 기준 휴대폰을 통한 5G 사용률은 1% 미만이며, 스마트폰 사용률은 48%임.
  - 현재 아프리카에서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는 5개국(케냐, 남아공,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토고)에 불과하며 올해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리비아가 서비스 제공을 예정하고 있음(그림 7 참고).
  - 202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신규 휴대폰 가입자 수는 5억 명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되며, 이 중 2/3는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차지할 전망이다(그림 8 참고).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현재 48%에서 2025년 64%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어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순으로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그림 9 참고).

2) 서로 다른 모바일 머니 제공업체 간 서비스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사용자들 간의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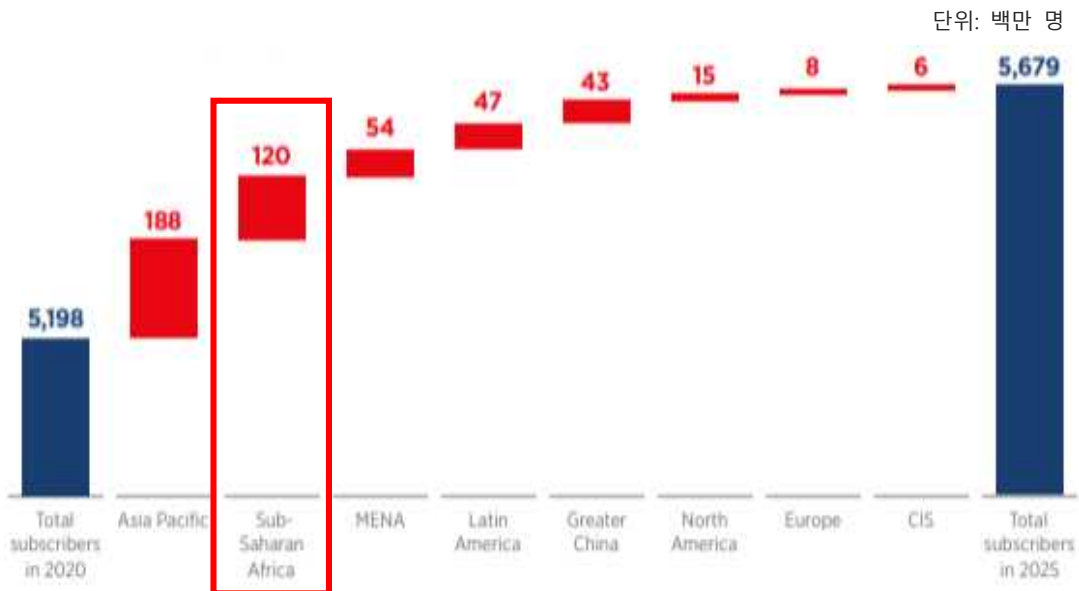
- 5G 이용률과 스마트폰 보급률의 증가를 기반으로 핀테크 산업은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동시에 서비스의 다양화도 예상됨.

[그림 7] 전 세계 5G 사용 분포 현황



자료: GSMA(2021), "The Mobile Economy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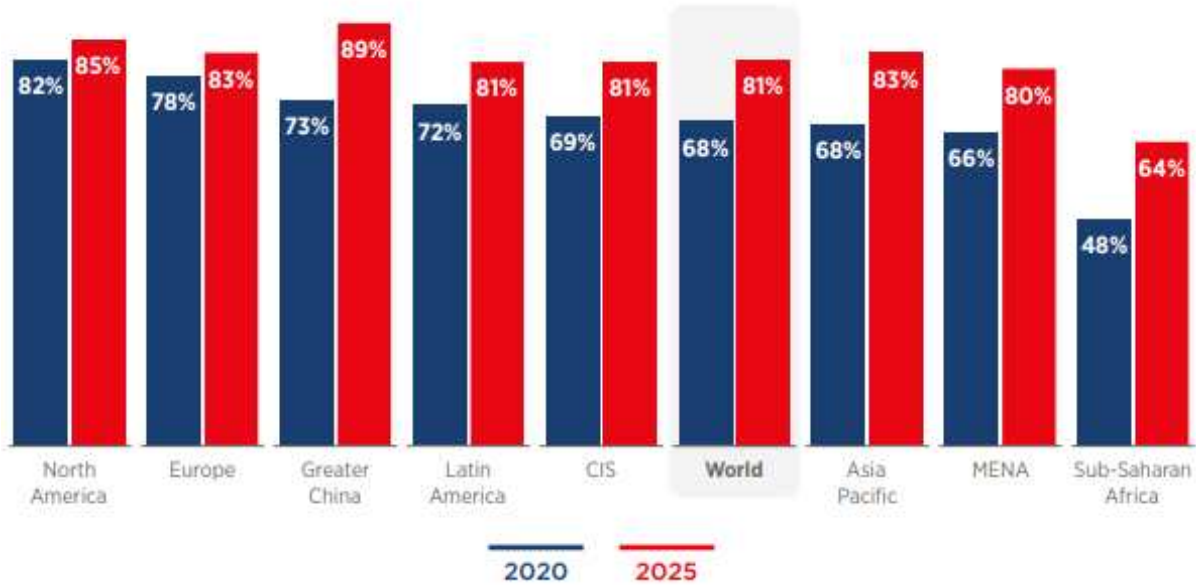
[그림 8] 전 세계 지역별 신규 휴대폰 가입자 수 전망



자료: GSMA(2021), "The Mobile Economy 2021"



[그림 9] 전 세계 지역별 스마트폰 보급률 전망



자료: GSMA(2021), "The Mobile Economy 2021"

### 데이터 보호, 디지털 권리, 사이버 범죄 예방 등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

-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응하고 디지털 경쟁력 및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하여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사이버 보안법 등을 제정함.
  - 현재 아프리카 54개국 중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한 국가는 28개국이며, 이 중 15개국은 해당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존재함.
  - 아프리카 국가들의 '디지털 권리 보호를 위한 표현의 자유 및 정보 접근의 원칙 선언'(2019년)과 '인터넷 접속권 및 자유의 선언'(2014년)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정부에 의한 인터넷 섀다운은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47%가 증가함.
- 아프리카에서 모바일 머니를 통한 금융 거래와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이용이 증가하면서 사이버 범죄 또한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 아프리카연합(AU)은 디지털 경쟁력 및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일관된 규제 마련을 위해 2014년 말라보 협약(Malabo Convention)이라고도 불리는 'AU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협약'(AU Convention on Cybersecurity and Personal Data Protection: CCPDP)를 채택하며 회원국들의 비준을 촉구하였고, 2018년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신뢰 구축 및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Personal Data Protection Guidelines for Africa)을 발표하였음.
  - 그러나 55개 AU 회원국들 중 26개국은 여전히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호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며, 8개국(앙골라, 가나, 기니,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르완다, 세네갈)만이 CCPDP의 비준을 완료하였고, 주요 국가인 남아공, 케냐, 나이지리아는 서명도 하지 않은 상태임. 또한, 사이버 범죄 대응 체계를 구축한 국가는 16개국에 불과함.
  - 따라서, 데이터 집약적인 핀테크 산업의 장기적 활성화와 투자 확대를 위하여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의 조성 및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범죄 대응과 관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디지털 생태계 구축 관련 우리 기업의 진출 방안 모색 필요

- 일찍이 영국, 미국, EU, 일본 등은 아프리카의 디지털 생태계 구축과 디지털 전환을 위해 기반시설 투자, 현지 스타트업 지원, 디지털 교육 등을 시행해옴.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비대면 서비스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아프리카의 교육, 농업 등 주요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디지털 분야 기반시설 설립, 신원 인증, 처리 속도 향상, 사이버 보안 관련 분야에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격적인 진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